

# SBS TV 종방극 '법쩐' 문채원 "이선균과 로맨스 없어서 깔끔했죠"

## 3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 검사 출신 법무관 육군소령 '박중경' "작가님이 '건조한데 생명력은 있어야 한다'고 해 참 어려웠다"

배우 문채원(37)은 연기 변신을 의도하지 않았다. 드라마 '악의 꽃'(2020) 종방 후 영화 '우리들은 자란다'(감독 최원섭) 개봉이 이뤄져 뜻하지 않게 공백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SBS TV 종방극 '법쩐'으로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복귀, 검사 출신 법무관 육군소령 '박중경'으로 분했다. 처음엔 거의 민낯으로 연기하는 데 부담감이 없지 않았지만, 어느새 자연스럽게 동화됐다. 영화 '스포트라이트'(감독 토마스 맥카시·2016) 속 레이첼 맥아담스(45)를 참고했다며 "익숙하지만 새로운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변신을 계획해 '이전 드라마와 다른 게 있을까?' 고민하면서 접근하지 않았다. 그래도 기왕 만났으니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작업했다. 악의 꽃 이후 영화로 분위기를 풀어서 법쩐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데뷔 초를 제외하고 언제가부터 화장을 많이 하고 나오는 역이 없었지만, 이번엔 너무 최소화해 처음에는 '그래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독님이 '멋있게 만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 초반에 몇 번 찍고 금방 괜찮아졌다."

이 드라마는 돈 장사꾼 '은용'(이선균)과 법률 기술자 '준경'(문채원)의 복수극을 그렸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 김원석 작가와 영화 '악인전'(2019) 이원태 감독이 만들었다. SBS TV 금토극 편성 효과를 봐 1회 8.7%(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시작, 12회 11.1%로 막을 내렸다. 준경은 사법고시와 연수원 수석을 한 모범생으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스스로도 "현실에서 만나기 조금 드물다. 약간 딱딱하고 차가워 친해지기 어려운 스타일"이라며 "모범생이라서 재미도 없고 조금 건조하지 않느냐. 누구를 만날

때 항상 단정할 것 같아서 끝까지 일관성 있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귀띔했다.

"작가님이 '건조한데 생명력은 있어야 한다'고 해 참 어려웠다. 계속 연구하고 연습해 피드백을 받으면서 썼었다. 스포트라이트 속 어른들을 보면 정말 멋있더라.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에선 좀 힘들더라. 자신의 일을 묵묵히, 책임감있게 해 멋있었는데, 준경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오길 바랐다. 현장에서 모니터링 해도 막상 TV로 보면 아쉬움이 남더라. 그래도 같이 한 배를 타고 이 작품을 찍었고, 만족감에 의미를 많이 두려고 했다."

팬소 팬이었던 이선균(48)과 호흡하며 배우 정도 많다. 제작발표회에서 "선배와 꼭 같이 연기해보고 싶었다. 꿈을 이뤘다"고 할 정도다. "혼자 시청자, 관객으로서 좋아했는데, 같이 호흡하니 좋았다"며 "선배는 사람 냄새가 많이 났다. 어떤 대사를 해도 말이 되게끔 해 신기하더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너지가 났다"고 만족했다.

후반부에 '은용과 준경의 로맨스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 시청자들도 많았다. 러브라인 없이 끝나 아쉽지는 않았을까. "나중에 연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과거 두 사람이 좋아했을 것 같았다"면서도 "사전미팅 때 물어보니 작가님이 '그런 감정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로지 가족처럼 의지하고 서로 곁을 내어주는 관계라고 하더라. 오히려 깔끔했다. 만약에 애매하게 (멜로를) 넣었다면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멜로는 없었지만, 사랑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

지 않았다"며 "옆에 좋은 사람 한 명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고 덧붙혔다.

마지막회에서 은용의 기막힌 작전으로 '명회장'(김홍파)과 '황기석'(박훈)은 구속됐다. 준경은 어머니 '윤혜린'(김미숙)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은 책을 썼고, '장태준'(강유석)과 함께 정의로운 검사의 길을 걸었다. "결말은 만족했다. 돈과 권력을 빼앗고 지은 죄의 값을 치르게 해 '이만한 복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주인공들의 마음이 편안해진 거까지 보여줘서 좋았다. 물론 굉장히 짜릿하고 통쾌한 복수는 아닐 수 있지만, 작가님과 감독님이 엄청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고 짚었다.

문채원은 데뷔 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보다 지금이 편해 보였다. 그 동안 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2008)를 비롯해 '공주의 남자'(2011)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2012), '굿 닥터'(2013), 영화 '오늘의 연애'(감독 박진표·2015) 등에서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드러냈다. 이후 '굿바이 미스터 블랙'(2016) '크리미널 마인드'(2017), 악의 꽃 등 액션물로 변화를 시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 다음이 있는 것"이라며 "특정 장르·캐릭터만 계속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재미가 떨어져 조금씩 변화가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넓어지면 좋는데, 지금은 선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시청자로서 즐기는 건 좋지만, 너무 납득이 안 되는 밝음을 연기하는 것은 어렵다.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도 내 역량이 있으니까. 약역 도전할 생각은 없나? 해본 적이 없지만, 재미있을 것 같긴 하다. 근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지 않을까. 대중들이 작품



을 많이 사랑해주던 때가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화양연화는 편안한 시기다. 이전에는 마음이 편안할 때가 없었다. 지금이 과거보

다 편안하고, 앞으로 조금 더 편안한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남들이 좋은 시기라고 해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 새소년 황소윤, 3년10개월 만에 솔로 'So!YoON!' 정규 2집



밴드 '새소년'의 리더 겸 프론트 퍼스인 황소윤이 3년10개월 만에 솔로 프로젝트 'So!YoON!'의 새 정규 음반을 내놓는다.

13일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에 따르면, 황소윤은 오는 3월 중 소윤의 정규 2집을

3월 발매...선공개 싱글 타이틀 '프롤로그 : 러브' 17일 공개

공개한다.

2016년 결성된 새소년은 2017년 데뷔했다. 황소윤은 2019년 4월 '소윤!'으로서 첫 싱글 '홀리데이(HOLIDAY)'를 발매했고, 같은 해 5월 정규 1집 '소윤(So!YoON!)'을 내놓아 호평을 들었다. 이후 태국 싱어송라이터 폼 비프리트(Phum Viphurit)와 함께 싱글 '윙스(Wings)'를 선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투어와 여러 아티스트와의 협업이 꾸준히 성사됐다. 패션 화보, 브랜드 광고 등 다양한 신(scene)에서도 황소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번 앨범에 대해 음악 팬들의 기대가 큰 이

유다. 황소윤은 지난 7일, 10일, 12일에 걸쳐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번 솔로 프로젝트 신보와 관련한 세 가지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첫 번째 티저 영상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황소윤의 실루엣과 새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소!'의 새로운 로고 티저가 공개됐다.

두 번째 티저 영상에는 각기 다른 6명의 황소윤이 등장해 앨범 발매 전인 17일 오후 6시에 정규 앨범의 일부 수록곡이 선발매된다는 점을 예고했다. 선공개 싱글 타이틀은 '프롤로그 : 러브(Prologue : Love)'다. '배드(Bad)', '캐나다(CANADA)' 두 곡이 실린다.

## '아바타:물의 길' 매출 2위... '극한직업'만 남아



영화 '아바타:물의 길'이 국내 개봉 영화 관객수 1위 작품인 '명량'을 제치고 매출액 순위 2위에 올랐다. 매출액 1위 '극한직업'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매출액 순위 최상단 자리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아바타:물의 길'은 지난 12일까지 1067만명을 끌어모으며 매출액 1361억5565만원(영화

진흥위원회 기준)를 기록 중이다. 이는 1357억 7483만원을 기록한 '명량'(1761만명)을 제친 2위 기록이다. 1위는 '극한직업'(1626만명)으로 매출액 1396억4797만원이다. '아바타:물의 길'은 '극한직업'과 매출액 차이가 약 30억원에 불과해 앞으로 관객을 조금만 더 불러들이면 매출액 순위에서 1위에 오를 수도 있을 거로 전망된다. 다만 오는 15일 마블 새 영화 '엔트맨과 와스프:퀀텀매니아'가 극장가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돼 '극한직업'을 추월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바타:물의 길'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흥행하며 22억1300만 달러(약 2조8250억원·박스오피스 모조 기준)를 벌어들였다. 역대 전 세계 개봉 영화 흥행 순위 4위 기록이며, '타이타닉'의 22억1700만 달러 기록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프로모션 없이도"...뉴진스 'OMG'·'디토' 美서 가장 많이 들었다

스포티파이서 뒷심 발휘하며 꾸준히 상승곡선

신드림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국내 음원 차트를 장기 집권 중인 가운데 세계 최대 팝 시장인 미국에서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특히 현지 프로모션 없이 이뤄낸 성과라 특별하다는 평가다.

13일 소속사 어도어와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뉴진스가 지난 2일 발매한 싱글 'OMG'의 동명 타이틀곡 'OMG'와 수록곡 '디토(Ditto)'를 가장 많이 들은 지역은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OMG'는 2월 10일(현지 시간) 기준 스포티파이에서 총 1억1128만 회 재생됐는데, 이 중 미국에서의 스트리밍 횟수가 2271만 회를 기록했다. 전체 대비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또 총 1억6489만 회 재생된 '디토'는 미국에서 2872만 회를 넘어서 약 17%의 점유율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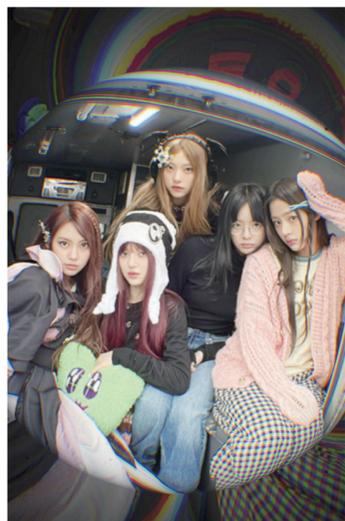
어도어는 "음원 발매 당시 급상승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일반적인 양상과 달리, 뉴진스는 꾸준한 뒷심 이상의 인기

탄력을 받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고 특기했다.

실제로 뉴진스의 'OMG'는 스포티파이 글로벌 '주간 톱 송' 차트에 95위로 첫 진입해 30위, 30위, 24위, 21위, 16위로 매주 순위를 끌어올렸다. '디토'역시 81위, 48위를 거쳐 21위, 11위로 경종 뛰어오른 뒤 8주 연속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스트리밍 횟수를 기반 삼아 뉴진스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HOT) 100'에 3주 연속 두 곡을 동시에 올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OMG'는 지난 11일 자 '핫 100'에서 77위를 기록했다. 지난 주 자체 최고 순위였던 79위보다 2계단 상승했다. 이 곡은 해당 차트에 91위로 처음 진입했다. '디토'는 지난 주보다 1계단 떨어진 90위를 차지했으나 해당 차트에 4주 연속 머물렀다.

어도어는 "뉴진스는 미국 현지 활동이나 프로모션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음악과 뮤직비디오만으로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미국 빌보드 '핫100'에 4주 연속 진입



했다"고 전했다.

## 진해 로케이션 영화 '카운트' 오는 22일 개봉

경남 창원특례시는 2020년 창원시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장관영화 부문 선정작인 영화 '카운트'(감독 권혁재)가 오는 22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카운트'는 총무로 대세 배우인 진선규가 첫 단추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제24회 서울 올림픽(1988년) 복싱 금메달리스트 박시현 선수의 일화를 담은 영화다. 창원시가 지원한 제작비는 3000만원이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마이웨이 선생 '시현'(진선규)이 오합지졸 해아씨 제자들을 만나 세상을 향해 유쾌한 한 방을 날리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서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지만 지금은 선수 생활 은퇴 후 고향 진해에서 고등학교 선생이 된 '시현', 거침없는 마이웨이 행보로 동네에서 일명 '미친개'로 소문이 파다한 그가 전도유망한 실력을 가졌지만 조작된 승부로 인해 기권패를 당한 '윤우'(성유빈)의 경기를 본 후 학교에 복수부를 만들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카운트'는 '시현'과 오합지졸 해아씨 제자들의 좌충우돌 케미로 유쾌한 웃음과 재미를 만들어낸다.

창원시 진해구에서 촬영 제작된 '카운트'는 진해 벚꽃명소인 ▲경화역 일원 ▲안민고개 ▲함암마을 ▲탐산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올해 4년 만에 개최하는 '진해 균형제'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